세찬바람의 땅을 복지로 사는 법

(예레미야 22:1~30)

20.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21.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22.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 때에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23.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찬바람의 땅을 복지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세찬바람의 땅을 복지로 사는 법'
1980년에 이장호 감독의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개발지역에서 잡초처럼 사는 세 젊은이의 모습을 블랙 코미디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덕배 춘식 길남의 우정과 이들이 펼치는 연애와, 연애에 뒤따르는 배신과, 배신에 대한 복수와 살인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바람이 세차게 부는 인생살이 속에서 주인공 덕배는 끝까지 꿈을 버리지 않고 오뚝이처럼 일어서려는 열망을 가지고 마침내 권투선수가 됩니다.
이 영화 제목의 의미는 '바람이 불어서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바람아! 얼마든지 세차게 불어봐라, 누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라는 심정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세차게 부는 삶의 환경에서 꿈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주인공 덕배의 모습은 장하고 기특하기보다는 차라리 짠한 모습입니다.
이 영화에서 바람은 삶의 문제와 사건들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좋은 날은 원천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속담과도 같습니다.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신경 써야할 일은 끊임없이 생겨나는데, 자녀가 네다섯 있다고 치면 정말로 바람

잘 날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와 사건의 바람이 분다고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바람이 지구 전체를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근본적으로 세찬 바람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바람의 땅 지구에서 복지를 살아가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를 살아감에 있어서 실패한 선민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람의 땅이라 부를 수 있을만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 외갓집이 포항이었는데 어려서 해변에 나가면 숨 쉬기가 힘들 정도로 바람이 거셌던 것이 기억납니다. 또 제주도가 바람으로 유명하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강릉도 대관령 때문에 바람의 언덕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티베트나 몽골이 유명합니다. 몽골은 '초원의 바람으로 시작해서 구릉의 바람을 거쳐서 호수의 바람으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람이 강한 곳은 아르헨티나와 칠레 접경의 파타고니아(Patagonia)지역이라고 합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맨 아래 삼각형 부분으로써 남한 면적의 5배 정도 되는데, 특히 칠레 쪽에서 부는 바람이 무척 거세고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4개의 트래킹 코스로도 유명한데 세 곳은 아르헨티나에 있고 나머지 한 곳은 칠레에 있습니다. 특히 칠레에 속한 트래킹 코스는 토레스 델 파이네(Torres del Paine)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초속 60미터, 시속 216킬로미터가 넘는 바람이 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보다도 빠른 바람이 부는 것으로써 초속 40미터 정도의 바람이 불면 사람이 날아갈 정도인데 그보다도 강한 바람이 부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전체가 파타고니아입니다. 사람을 날려버릴 정도의 불행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에서 '바람 불어 좋은 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속담처럼 거센 바람 속에서 행복과 기쁨과 감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권투 선수가 된 덕배와 같이 짠한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지의 삶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남 왕국 유다를 마지막으로 통치하게 될 세 왕에 대한 멸망이 예언됩니다.
남 왕국 유다는 BC.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망하기 직전에는 재위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는 왕을 포함해서 네 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왕은 20대 시드기야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드기야를 제외한 세 왕에 대한 멸망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입니다.
이 예언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살룸 즉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예언

이 나오는데 “잡혀 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지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을 보면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라고 슬퍼할 사람이 없을 것임을 예언합니다. 또 이어지는 19절에서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밖에 던져지고 나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라고 구체적인 죽음의 모습까지도 예언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 두 왕이 복지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삶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26절을 보면 여호야긴에 대한 예언으로서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12절에서 여호아하스 왕도 ‘잡혀 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라고 복지 바깥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편 27절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하였고, 29절에서는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을 통해 복지를 살지 못한 채로 끝나버리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토록 복지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멀어지게 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독특합니다. 22절을 보면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 때에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는 모습을 바람에 삼켜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파타고니아에서 부는 강풍으로 인해 복지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복지의 특징은 항상 기뻐함과 범사에 감사함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사고들로 인해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람의 정체로써 선민들을 복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선민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 이유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앎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아는 자 즉 공의와 정의를 지킨 대표적 인물로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앎’이란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듯이 부부가 동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지켜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서 마음으로 연합하지 않는 한 복지를 살게 하는 기준이 되는 공의와 정의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할 수 없게 한 원인을 바람으로 상징한 것이 참 독특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천지창조 때의 모습을 생각해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 '루아크'로써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해서 내 마음에 모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하나님은 인격체이신 영이십니다. 그리고 '운행하시다'라는 말은 암탉이 알을 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알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들입니다. 닭이 품은 알이 부화하듯이 하나님이 품으신 계획들이 하나님의 입의 명령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창조를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마지막으로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판단해야만 합니다. 판단을 기초로 생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언어를 통해 만들어지고 그 언어가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되고,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판단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영을 모신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나의 판단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창조해나가시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더 좋아하는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녀의 형통을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승진이 좋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서 마음에 들여놓고 나면 하나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영으로써 나와 하나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루아크라는 원문의 뜻대로 바람이 되십니다. 사람을 날려버릴 정도로 강한 파타고니아의 시속 216킬로미터의 바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

이면 내 안에서 창조하시는 영이 되시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에 대해서는 나를 날려버리는 바람이 되십니다. 복지에서 날려버려진 삶에는 기쁨대신에 슬픔 걱정이 생기고 감사대신에 불평불만이 생겨납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신에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 지구에는 현재 75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여 복지를 살아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던 60만 명의 장정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만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과 같습니다. 30만 대 1의 확률입니다. 이런 확률이라면 75억 인구 중에서 몇이나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30만 대 1도 힘들다고 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날려버리는 바람이 되셔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삼켜서 어디인가로 날려 보내십니다. 그 곳은 포로생활로 상징되는 생각과 행동의 자유가 없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이 기가 막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로부터 멀어져서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성이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그곳으로부터 네 시체가 던져져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 중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에 대한 예언을 떠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는 여호아하스에 대해 '잡혀 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하였고, 19절에서는 여호야김에 대해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가 죽게 되고,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 왕과의 전투에서 죽어 매장당하지 못한 채로 내던져지게 됩니다. 또한 여호야긴 왕은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두 복지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복지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판단과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복지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바람이 멈춘 장소입니다. 영이신 인격체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연합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날려 보내는 바람이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 눈에는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마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더는 나를 불행하게 하는 사건이나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참수형을 선고받고도 감옥에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바람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죽도록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

습니다. 영이신 인격체 하나님을 받아들여 연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으로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상황도 감옥에 갇힌 것도 모두 복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만을 좋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람이 아닌 인격적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창조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복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어떨까요? 돈이든 승진이든 건강이든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빠져드는 대상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대상이 원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없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바람이 되십니다. 복지로부터 멀어진 삶에는 기쁨과 만족으로 인한 감사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 대신에 나의 생각의 함정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바람에 날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체이신 영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람으로 역사하시게끔 밖으로 몰아낸 결과입니다.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강릉의 바우길에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겨울에 이 산책로를 걷다보면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관령으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소나무들은 흔들리고 작은 풀들은 다 눕다시피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람이 강해도 바다가 유리처럼 잔잔합니다. 또 반대로 바다에 제법 높은 파도가 일어나는데 정작 소나무 숲은 미동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유리벽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는 삶의 문제라는 파타고니아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왕들처럼 복지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스스로의 생각에 잠겨버린 삶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은 유리벽을 쳐놓은 것처럼 조용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나의 진짜 모습으로 인정하는 자들의 삶에서는 바람이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만 파타고니아 같은 바람은 잦아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는 참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에는 이런 일을 바람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복지는 환경적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돈이 많고 건강해야 복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은 엘리트 코스를 걷는 것이 복지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마음이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지의 삶입니다. 세상의 바람이 영향을 주지 못하고 마음에서 바람이 잦아든 상태가 유지되는 곳이 복지입니다.

복지를 살아가는 방법은 필사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든 어떤 사건 앞에서든 그 모습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불행한 사건이 펼쳐졌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죽었는데 문제는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 부부가 동침해서 서로를 알듯이 마음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실 것이고 끊임없는 교통을 통해서 나의 판단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창조해나가실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십자가를 밝히 보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삼키는 파타고니아의 바람과 같이 복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삶의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기쁨과 만족이 생겨나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버거운 것은 내 생각의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삶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과의 교통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만 이루어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필사적으로 고백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방수처리된 것처럼 세상과 구분될 때에 복지 한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아니라 물가의 심긴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인격적 영으로써 나와 연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세상을 좋아한다면 하나님은 밖에서 나를 겨처럼 날려버리는 바람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을 통해 시편 1편 3절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심으로 내게서 나오는 판단의 열매, 생각의 열매, 말의 열매, 행동의 열매들이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되고 사건마다 합당한 최적의 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께 박수 한 번 쳐 드리십시다.

파타고니아의 바람을 죽이는 역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밖에 계시면 바람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인격적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이 지구 위에서 바람이 멈춘 복지로 살 수 있는 길을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고백하여 바람 불어 좋은 날이 아니라 파타고니아의 바람이 멈춘 복지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파타고니아의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바람이 멈춘 복지로 들어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